

공화국의 군력을 최강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체101(2012)년 7월 17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신 매우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은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 아래 나라의 군력이 비할바없

이 강화되고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지난 10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

로 꾸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군술은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비롯한 전군적인 대회들과 오중홍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에도 여러

세계유일의 최정예혁명강군을 키우시어

지난 4월 25일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앞으로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열병대오를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은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시어

지난해 평양에서 있는 국방발전전략 《자위-2021》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4월 25일 김일성광장을 누비며 도도히 나아가는 열병대들을 보며 세계는 공화국국방공업의 발전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단국방과학기술의 높은 고지를 점령해나가도록 힘과 고무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전군을 령도자와 생사를 함께 하는 진정한 혁명무력으로 되게 하였다. 지난 4월의 열병식장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합성을 리치는 열병식참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을 잘 엿볼 수 있다.

진정 천출명장의 탁월한 군건설령도가 있어 공화국군대는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든든히 준비된 최강의 군대로 자랑날 수 있었다.

나라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는 강위력한 혁명군대가 있어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였다. 특히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백두산군마행군길에도 불러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뜻깊은 《백두산》 기념권총도 직접 수여해주시며 그들이 틀어잡은 총대에 항일의 넋을 만장약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있고 적을 단호히 제압분쇄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종대들, 공화국전략무력을 대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시위하는 이 철의 대오, 조선로동당시주체병기들은 국방공업발전에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스스로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 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지난 10년을 되새겨보며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손길 따라 나아가길 승리의 대통로를 내다보고있다.



자위적군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려고

전력군의 위엄을 높이 드시며

주체103(2014)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었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력라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미사일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사 전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라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전승절을 맞으며 리친 이번 화력라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파도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다가의 발사장으로 나오시었다.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백두대지의 영웅청년들을 만나보고 돌아오시는 길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람세찬 바다가발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이날 기께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귀환하는 전략잠수함을 항구에서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력사적인 성공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풀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기쁨도 시련도 이겨내며 헤쳐온 탄도탄개발의 고심참담했던 나날들이 눈에 밝혀와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거듭거들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원인이 있을수 없기 날

주체106(2017)년 3월 18일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시기 위해 불같은 헌신과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지상분출시험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제작정형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른새벽 몸소 서해위성발사장에 나오시어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세심히 로해하시고 시험을 지도하시었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열사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사일공업발전에서 대미약을 이룩한 이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누가 우리 민족의 진짜 주적인가

— 윤석열패당이 주장하는 《북주적론》을 두고 —

윤석열역도가 권좌를 차지한지 두달이 지났다.

비록 길지 않지만 역도의 전면모를 진단해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다.

공개된바와 같이 지난 5월초 윤석열과 그 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이미 역사의 락업으로 버림받은 《북정권과 북인민군은 주적》이라는 대결용어를 다시 들추어내어 《국방백서》와 군정신교육지침서에 쏘아박았다.

반공화국적대정책이 《국시》로 책정된데 따라 지금 남조선에서는 《신제타격》과 《단호한 응징》 등의 호전적폭언들이 란무하고있으며 미핵전략자산들이 몰려들어 북침을 노린 각종 명목

의 대규모공중, 해상연합훈련들에 광분하고있다.

며칠전에는 윤석열역도가 괴뢰록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 대결모의판을 벌여놓고 《주적판》을 바로가지라, 북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뇌거려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호전적인 대결광태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각일각 극단으로 치달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주장하는 《북주적론》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겨레의 평화소망을 핵전쟁의 악몽으로 뒤바꾸는 전쟁론이며 제스스로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자멸론이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전면부정론

적이란 절대로 공존, 공생할수 없고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존재, 반드시 격멸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적가운데서도 주되는 적, 첫째가는 원수가 바로 주적이다.

그런데 윤석열역적패당은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꺼리낌없이 공포한것이다.

과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북주적론》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은 협력의 대상이나 평화실현의 동반자도, 신뢰할 상대도 아니며 오직 적대관계에 있을뿐이라고 무작정 단언한것이다.

이는 북과 남의 공동발전과 민족적 단합, 평화달성을 온 민족앞에 서약하였던 과거의 모든 합의들과 선언들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이다.

북과 남이 온 겨레의 지향에 부응하여 파란만장의 우여곡절을 헤치며 힘겹게 써나갔던 소중한 북남관계사에 대한 전면백지화이다.

이미 윤석열역도는 취임전 《위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였는 선임자들의 《대북정책》의 완전결별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내놓고 공언하였다.

엄중한것은 역적패당이 《주적》의 대상을 우리 공화국정권과 그 수호자인 인민군대로 정하는것으로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기도를 숨김없이 공개해낸것이다.

사실 역대 괴뢰집권자들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은자들이 없다.

그러나 우리 인민정권의 《붕괴》를 《국정파괴》로 정하고 입기간에 추구를 핵심목표로 감히 《흡수통일》 실현

을 내세운 그런 불망나니, 대결악한은 없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전면부정을 《국책》으로 정하고 우리 《체제전복》을 공식화한것이야말로 반민족적망동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와 국가제도는 우리 인민스스로가 선택한것으로서 이를 부정하는것은 곧 우리의 존재 그자체에 대한 전면거부를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이고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으로말로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윤석열패당은 또한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들이 《도발》이고 《위협》이기때문에 우리를 《주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자위권은 우리의 국권이든 국방력강화조치는 날로 가중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이를 부정하는것은 우리의 국권에 대한 탄복한 침해이며 우리 군사적주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북주적론》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을 저들의 들도 없는 생존수단으로, 집권유지의 명줄로 여기고있기때문이다.

저들의 파쇼통치, 반역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실체가 없으면 날조해내서라도 주적이 있어야 하고 안보불안세력이 존재해야만 생존과 집권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피이 짝은 《생존관》이다.

내편이 아니면 적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은 역대 보수집권세력이 비롯처럼 물러는 집권유지의 케케묵은 유훈

이다.

《북주적론》의 무지함과 황당함, 핵악성과 위협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다면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 첫째가는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한 전쟁론

윤석열패당의 《북주적론》은 사실상 북침도발을 기정사실화한 로골적인 전쟁론이다.

《주적》과의 극단적인 대결은 기필코 물리적충돌,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련이다.

동족을 교전상대로, 적으로 삼았다는것은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몇가지 사실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주적론》의 선창자는 윤석열역도이다.

권력의 덕대에 오른 윤석열역도가 무엇때문에 정치의 《정》자도 파악하기도 전에 《북주적론》부터 서둘러 내들었는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수 있었지만 역도의 성장과정을 소급해보면 그에 대한 일정한 답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교훈리개시절부터 골목대장이 되어 걸핏하면 싸움질을 하고 나쁜 짓거리만 플라하여 악몽으로 락인되는 등 막 스텝계 잔뼈를 굳히고 일단 검찰이 된 다음에는 피의자들을 끌어다 판장을 치고 괴투성으로 만들어 토벌을 받아 내는것을 락종의 쾌락으로 삼은 폭군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대통령》선거가 먼 발길이 닿는 유세장을마다하여 깃을 피우 인기를 끈다는것이 주먹질흉내로 꼴볼견을 연출해낸것만 보아도 역도가 얼마나 강대기질이 몸에 찌들은 패덕한인가를 잘 알수 있다.

역도의 불망풍기는 권좌에 틀고앉은 이후 더욱 유감없이 드러나고있다.

내외의 호된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끝끝내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괴뢰국방부청사로 정한것은 안주인의 점괘를 따르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대결과 전쟁의 상징인 그 건물이 화약내를 즐기는 호전광의 체질에 신통망통 들어맞았기때문일것이다.

괴뢰국방부청사가 《대통령》사무실을 정한 역도에게 있어서 《국정》의 1순위는 자연히 북침전쟁일수밖에 없고 그 실행의 전주곡으로 《북주적론》이 울러나오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준동이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약체가동과 남조선에 대한 핵전략자산들의 상시전개를 공식화한데 따라 미핵항공포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들, 핵잠수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떼지어 쏟아지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괴뢰군단독훈련들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다국적연합훈련들이 실천분위기속에서 대규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벌리는 반공화국 베라살포행위는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베라살포는 상대에 대한 로골적인 심리모략전이다.

전쟁전략에 심리모략전이 벌어진다라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우리 군대가 이미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가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이고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망동, 전쟁유발책동으로 된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한것은 그대뿐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지금과 같이 당국이 《탈북자》쓰레기들에게 베라살포기

재까지 제공해주며 반공화국심리모략전으로 내몬적은 없었다.

괴뢰패당이 얼마나 북침광중에 들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윤석열역도가 오죽이나 전쟁광중에 사로잡혔으면 백사불구하고 지구 한쪽 변두리에서 진행되는 나토수뇌자회의에까지 부득부득 머리를 들이밀며 분주탕을 피워냈겠는가.

하긴 윤석열역도에게 《장검》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미국상전이 넘볼처럼 외위대는 우리에 대한 적대시의사가 없다는 말치레가 마치 승냥이가 괴물은 이발로 풀을 뜯었다는것과 같은 완전한 위선이고 그만이며 한갖 요설에 불과하다는것을 꺼리낌없는 《북주적론》나말로 만천하에 증명해보였으니말이다.

우연한 실수인가, 아니다.

상전의 흥심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열에 들뜬 천하에 들도 없는 특등호전광이기때문이다.

완화보다 격화를, 대화보다 대결을, 평화보다 전쟁을 추구하는 폭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재난과 참변이 닥쳐오기마련이다.

윤석열호전광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그 가능성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시간문제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동족을 격멸대상으로 삼고 온 겨레의 운명을 유희와 참혹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역적무리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이고 천하에 들도 없는 재앙거리이다.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자멸론

세상에 천명만바와 같이 우리는 적을 특정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라는것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그릇된 대결망동으로 하여 제스스로 우리의 주적으로, 괴적으로 나서고있다.

우리가 정상적인 자위권강화의 일환으로 조선동해상에 미차일시시험사를 진행해도, 1만 수천km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해도 다름아닌 저들이 그 표적으로 되었다고 한사코 우려내는데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이다.

군사적범의한이 되어서인가, 아니면 상식조차 모르는 우매한이어서인가.

물론 동서남북도 편별하지 못하는 무지때문만도 아니다.

여기에는 그레아만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무작정 《도발》로 걸고들수 있

으며 우리를 덜어놓고 《위협세력》으로 몰아대어 저들의 《북주적론》을 합리화할수 있으며 도발적인 적대적행위들도 공공연히 자행할수 있다는 타산된 음모가 깔려있다.

무지에 객기가 더해지면 재앙을 낳다고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역도가 선거유세기간 부러대는 호전적인 객기를 보면서 화약고안에서 불안단하는 철부지를 보는 느낌이다.

저런 안보초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나겠다고 걱정하였는데 바로 그 불안과 우려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저들의 권력유지와 생존부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자국하거나 건드리는 일체의 행위를 그만두는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이다.

우리와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마저 핵용동이를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침략세력이든 초전격멸할 반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덤벼들려는것은 자기 종말만을 재촉하는 미혹한것으로 될뿐이다.

그러지 않아도 남조선의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직업으로 알려져있다.

남조선이 인위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되어있는데다가 대국들의 짤에 끼워있는 《새우》라는 가궁한 신세때문이기도 하다.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이 말로나마 우리와의 관계개선과 평화를 외워대고 《북방정책》이요, 《샌드위치외교》요, 《균형외교》요 하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눈알을 굴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매여달려온것이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정치도 외교도 군사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윤석열역도는 선임자들의 숙명적인 교훈을 리해하지도 못하고 미국에만 덜어놓고 굴종, 추종, 맹종하여 주변대국들의 중의의 대상, 보복용정의 표적으로 되고있다.

윤석열패당의 《북주적론》이야말로 곤장을 매고다녀며 못매를 청하는 미련한 자멸망동이다.

하늘에 대고 제 머리에 불소나기를 내려달라고 비는 《자멸의 기우제》이기도 하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는 법이다.

사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국상전의 궤를 핵우산밑에 기여들어가 우리와 맞서싸우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호전세력이야말로 불을 내뿜는 총구앞에 나서는 가련한 불탄당들이다.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반드시 소멸될것이라는 백두의 불뢰성이 이미 울려퍼졌다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저지른 죄악으로 자기의 진도를 철철 암흑으로 만들어놓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때나마 숨통이 트였던 때가 남조선에 있어서 두번다시 차레지지 않을얼마나 꿈만 같은 행운의 시기였고 들도 없이 소중한 날이였는가를 두고 두고 통감하게 될것이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인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문예전문가 전성호

《조선없는 대화》타령 기만적인 꾀변

무슨 토론회에 보낸 《축사》라는데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여들었다고 떠벌이였으며 《국무총리》라는자도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 올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담대한 계획》을 통한 《북남관계정상화》와 《인도주의적협력》에 대해 운운하였다.

통일부 장관이라는자 역시 《대화의 시작과 리행은 한결같은씩 발견음으로 이루어질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속검은 놈 비단보자기 뒤집어쓴다는 속담 그대로이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행태는 어떠한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대통령》 감투를 쓰자마자 《북정권과 북인민군은 주적》이라는 대결용어를 《국방백서》와 군정신교육지침에 쏘아박았다. 또한 공화국에 대

한 《신제타격》과 《단호한 응징》을 떠벌이며 《한미확장억제전략협약체》의 재가동과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개를 공식화하고 괴뢰군단독훈련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다국적연합훈련들을 실천분위기속에서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뿐인가. 공화국을 봉쇄, 암살하기 위한 국제적모의판들을 찾아다니며 대결광기들을 부리고 지어 인간쓰레기들에게 베라살포기까지 제공해주며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내몰고있다.

이것이 《조선없는 대화》에 대하여 광고해대는 윤석열패당의 본색이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해 떠들고 돌아앉아서 동족을 해치기 위한 대결책동에 광분하는 앞뒤가 다른 괴뢰침자들, 속검은자들이 바로 윤석열역도와 그 괴거리들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진짜로 추구하는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이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오물은 비단보자기로 감싸도 악취를 풍기는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대화에 대해 떠들며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대도 극악무도한 대결광, 전쟁열에 들뜬 천하에 들도 없는 특등호전광의 정체를 숨길수 없다.

상대방을 극도로 적대시키고 대결에 광분하면서 대화에 대해 입에 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이중적행태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민심과 여론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다.

부인하건대 윤석열패당이 떠드는 대화타령은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우고 민심과 여론의 환심을 사보려는 기만적인 언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은 겨레는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달려면서 민족에게 재앙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대결망동

최근 남조선에서 련이어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베라살포망동이 겨레의 치웃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 《탈북자》쓰레기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것들은 반공화국베라와 더불어 물건짝들이 담긴 대형풍선들을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날린 사실을 공개하였다.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베라살포가 상대에 대한 로골적인 심리전으로서 군사적충돌과 전쟁의 전주곡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지난 시기 반공화국 베라살포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북남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지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총포탄이 오가는 국면까지 조성되었던것이다.

생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세계적으로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벌어지는 베라살포망동이야말로 화약

고우에서 불안단을 하는것이 나 다름바이다.

문제의 엄중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얼마전 공화국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전문기관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조사한데 의하면 공화국경내에 류입된 《COVID-19》감염종의 첫 번째발병지역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전연지역으로 확증되었다.

이것은 공화국경내에 확산된 악성전염병이 《탈북자》쓰레기들의 베라살포망동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베라살포망동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패당이 이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를 묵인하고 부추기고있는것은 역적패당이야말로 《탈북자》쓰레기들과 다름없는 인간오물들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대재앙을 불러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중단시킬 투단의 대책을 세우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반공화국 베라살포망동이 계속된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과는 공화국이 이미 천명한 것처럼 2년전에 단행된 북남공동협력사무소파괴도가 아니라는데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반공화국 베라살포행위가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리연선

인원으로 보는 판이한 두 현실

국민의 행복, 기쁨이 넘치는 나라

립성은 전공부에서 막힘이 없는 경쟁한 실력자들이 다. 그들에게는 귀여운 말에도 있고 가정생활의 즐거움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단순히 단란한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망이 활짝 꽃피는 정다운 일터에서 훌륭한 산업기술도안들을 창작하며 로동의 희열과 광만에 넘쳐있다.

보람찬 일터에서 혁신과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이 어찌 이들부부 만이랴.

안정된 일자리와 훌륭한 노동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법으로 되어있는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창조와 건설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그들이 누리는 평범한 노동자 출신의 노력영웅,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도 있고 오래동안 한일터에서 성실한 로동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근로자들도 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열의에 넘쳐 과학기술보급에서 열심히 배우는 창의고안의 명수들도 있고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으로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지식을 넓혀가는 근로자들도 있다.

혁신으로 하루를 빛내고 눈부신 기적창조로 보람찬 로동의 기쁨을 맛보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그 어느 공장, 기업소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일터마다 넘치는 희열과 광만은 그대로 생산장상하의 동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평범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휴식과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도처에 궁전과도 같이 꾸러진 노동자합숙, 휴양소, 정양소들이 행방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다.

자본주의사회가 지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이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 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더욱 빛

내어주시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실업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근심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다름 아닌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으로, 나라의 정책으로 되고 있다. 조국인민들이 정말 부럽다.》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로동이 영로로, 보람으로 되고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참모습이며 근로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사실들은 근로자들이 훌륭한 노동조건과 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공화국이야말로 진정한 근로대중의 세상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정년퇴직의 미미한 현실

—남조선에서—

남조선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로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실업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황시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있는 남조선 노동자들이 아침에 나누는 첫 인사말이다.

남조선에서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난해 상반기 491만 6 000여명으로서 2017년 이후 140여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에 비정규직로동자들이 64만명이나 더 늘어나 역대 최고수치를 기록

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를 비정규직로동자의 수는 1 000만명에 육박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만능적인 실업의 가장 큰 희생자로 되고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대다수가 실업자로 방황하고있으며 결혼, 임신, 해산을 하면 의례히 직장에서 강제퇴직당해야 한다.

한 조사기관은 매해 4 000~5 000명의 여성로동자들이 산전산후휴가기간에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여성들도 시간제일자리에서 일하고있으며 고된 로동에 시달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이 안전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일하다니니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자동차업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청년은 《남에게 밝히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있다》라

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업체에서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인간대우를 받지 못하고 업주들에 의해 살인적인 로동만을 강요당하고있다. 로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한다. 업주들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을 애당초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동차부속품이나 기계는 조금만 손상되어도 큰 번이라도 난듯이 고아대지만 로동자가 다치거나 기계에 깔리는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무관히 여긴다. 이 땅에서 로동자들은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인간, 무권리한 존재이다.》

돌아가는 기계에 감겨서, 집합에 깔려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서...

로동안전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장,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고들로 하여 하루에도 수십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불

구자로 되는것이 바로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지나해에만도 련약한 로동조건으로 하여 억울하게 숨진 근로자들은 800여명에 달하고 작업환경이 불리한것으로 하여 불구가 되고 광병이 들어 신음하는 로동자들은 수천을 헤아린다고 한다.

《로동자의 처지는 날로 련락되고 울분은 하늘로 치닫고있다.》 《이 땅에서 로동자들은 무책임한 존재, 재벌들의 돈벌이수단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결코 달라질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바로 로동자들의 삶이다.》... 이것이 남조선로동자들이 터드리는 절규의 목소리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업재해 등으로 죽음의 나락에서 헤매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민중이 숨쉬고 편히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웨치며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전화의 날에 세워진 전재민구호대책

지난 1950년 6월 25일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국제법을 란복하게 유린하면서 평화적인 도시와 마을 지어는 병원과 학교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다. 미국의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 정든 집과 가산을 잃고 한자도 나 없게 되었다.

어디 가나 보이는 의지가 지어지지 않았던 피난민, 전재민들의 모습이었다. 인민들이 겪고있는 이러한 참상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전재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시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39 (1950)년 11월 17일 내각부수상 홍명희선생을 전화로 찾아가서 전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그해 11월 20일 내각제29차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내각결정 제175호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전쟁에서 희생한 피해를 입은 전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전쟁으로 하여 련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

정시키고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 어린 사랑에 의해 1950년 12월 12일 당의 내각각시정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내각 제30차전원회의에서는 토의할 문제가 많고 일정도 매우 긴장하였지만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기본정책의 하나로 제기하고 내각결정 제187호 《해방지구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내각결정 제175호와 제187호를 받들고 전쟁에 의한 피해정형과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현지에

서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러하여 전제민들과 해방지구 인민들은 양곡과 주력, 연료 등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으며 식당, 상점들을 비롯한 상업 및 금양당국 도모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각 도소재지와 중요시, 군소재지들에 예속원과 양로원이 조직되어 전제민들과 홀로 남은 로인들을 국가가 맡아 돌보았으며 북부고산지대에 농목장들이 신설되어 전제민들이 안락하게 일하게 되었다.

존엄한 전생시기처럼 심하게 제기되었던 전제민문제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정책에 의하여 해결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방법을 혁신해간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결정을 받들고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는 전방성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하여 교수방법개선에 큰 힘을 쏟고있다.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을 세계적수준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교과서들을

세계일류수준으로 편찬하고 교육공간을 현대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모든 사업을 교육수준을 한계단 올려세우는데로 지향시켜나가고있다.

대학의 급속공부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선발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소질에 맞게 진행되고 분과단위에서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날수 있게 이들에 대한 교육

을 새롭게 진행하고있다. 무엇보다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외국과학기술선수와 편입생들을 마음먹은대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있을뿐 아니라 강의의 외국어로 진행하고있다.

학생들이 외국어를 완전히 습득한데 기초하여 장치와 정보기술, 기계, 건설, 자동차 등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내용들을 폭넓고 심도있게 취급할뿐 아니라 세계 일류급대학들의 특강강의자료들과 최신과학기술성과, 교육성과들을 교수내용에 포함시켜나가고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리론과 실천이 겸비된 인재로 준비될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현장에서 접근시키고 실험과 실습, 현장체험 등 교육과정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집행하고있다.

이곳 최립호실장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현장기사를 실을수 있게끔 현장에 진출하여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해결할수 있는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연구사업도 진행할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실험실습설비와 환경들을 첨단수준으로 부단히 갱신하며 세계 일류급대학들과 공동수업, 공동실습을 비롯한 교류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있다.

날마다 시간마다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이 교수방법은 부단히 세련되고 있다.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이곳 대학 교직원들의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노력은 대학의 교육수준을 하루빨리 세계를 앞서나가는 교육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귀중한 밑거름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수필

머칠친 취재차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 기준, 새 기록들과로 새창에 뚫어놓는 건설장의 활기찬 숨결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앞에 한 돌격대원이 쉼없이 달려가는 속보의 움직임이 리드미있게 전개되었다. 《보석》 속보의 제목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연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였다. 이곳 건설장으로 매일 저녁마다 지원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일은 혼합물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 혹은 물을 보장해주는 레사로운 일이라고 한다. 물론 그들의 일손이 공사에 그 무슨 큰 보탬이 되려면 퇴근후까지 바쳐가며 살림집건설에 모래 한삽, 세멘트 한삽, 물 한바게뜨라도 더 보태고싶어하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 하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예로부터 리없이 깨끗하고 훌륭하며 아름다운것을 보석에 비유하여왔습니다. 살림집건설에 바쳐가는 지원자

보석

가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동히 되새겨졌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보석은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언저리 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이라고 하시던 그날의 금언이. 애국, 바로 이것이었다. 사상초유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성과적완공을 위해 굶는 마음, 마른날 가림없이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애국의 열망에 의해 누구나 놀라워하는 화성의 기적이 태어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온 나라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있다. 김 영 범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사는 해외동포들

(우리 학교인데 얼마나 무관심하냐?) 알기는커녕 관심조차도 못 가진 자기들이 부끄럽기도 하여 더 잘해보자고 조동무들은 준비에 달려보았습니다. 질문내용이 정제된 우리들은 말하기려움을 하였습니.

우리 교실에서는 여기저기에 조별동무들이 모여앉아 《안녕하십니까? 학교연락을 물어보아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토크쇼가 열렸습니.

중3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말에 대한 생각을 들었을 때 나의 우리 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변했습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워 공립대학에 진학했는데 내가 배운 교육내용중에서 가장 배웠던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련락사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련락사와 너무도 달라서 련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로부터 쉼야 하니까 쓰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재산으로서 말과 글을 지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라고 하면서 우리 말을 지키는것이 우리 학교의 련락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전곡에서 들려오는 인터넷의 목소리!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유치반무상화를 실시하여 오늘

이어갈 새 학교문패 (2)

까지 75쪽의 련락을 새겨온 허가시오사초중학교, 지금도 낮은 목조교사이지만 동포들의 열성이 지극하고 일본사람들의 지원사업이 뜨거운 조호중학교, 복식수업을 하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달마다 어머니회 음식주문배달도 꼭꼭 진행하고있는 후쿠시마학교 어머니회자랑, 비록 초중학생이 6명이지만 친형제학교로 명성을 떨치는 시교중학교의 모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학교를 지켜갈 사명감으로 창조하고있는 학교소식들을 통하여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

이처럼 방방곡곡에 민족교육의 부리가 뻗어 그우에 우리 학교가 덩실하게 일떠서고있는것이구나! 비좁은 울타리너머에서 우리 학교를 보던 나는 70년의 민족교육의 련락사와 우

리 아버지, 어머니, 동포들의 열성을 가슴부듯이 느끼게 되었으며 가슴속에 조선학생된 자부심과 긍지가 차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존재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간직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내용을 벽보에 써나갔습니.

우리 학교가 하노조노에 세워진지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전인 1952년. 동포들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했던 그 시기에 먼저 세워진 우리 학교,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에 힘을 기울여온 우리 학교의 련락과 로정을 말해주는 학교정문에는 지명이 썩어진 학교문패가 달려있었습니다. 며칠만에 걸쳐 벽보를 쓰느라 4월달에 진행된 4.24의 학습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

나는 자료학습을 통해서 4.24교육투쟁정신을 이어서 선배들이 학교문패를 계속 지켜주셨기에 통합된 오늘날에도 새 문패를 달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감과 그 무게를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웨쳤습니.

(자기가 이루고싶은 꿈을 향하여 그림을 잘 그리면 화가의 길을, 춤을 좋아하면 자기 실력이 꽃피는 길로 나아가는것이 진로가 아니다.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 자기 희망을 실현하고 자기가 회사를 일할 때를 택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진로이다.) 나는 완성된 벽보를 가지고 조동무들과 우리 학교 새 문패에서 활짝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빛내줄 새 마음을 안고! 재일동포 전 해 순

새로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적

최근 라선시 라진구역 해양동의 초도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새로 발굴되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라선시 민족유산보호부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유적조사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청동기시대의 무덤유적을 발굴하였다.

동서방향으로 놓여있는 무덤은 장방형의 구덩이안에 나무판을 묻어놓은것인데 깊이는 50cm정도이고 검은흙층의 30cm깊이에서부터 사람뼈와 유물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밑에는 조개껍질이 10cm정도의 두께로 깔려있었다.

사람뼈는 머리뼈복합상태와 관절부위의 특징으로 보아 20~30살 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인정된다.

사람머리뼈의 형태를 보면 남자는 단두형이고 녀자는 단두형에 가까운 중두형이다.

머리뼈의 인류학특징은 이마가 아주 굵고 얼굴뼈가 중간얼굴형이며 코마루가 낮고 중간코형에 속하는것, 눈확은 높은 눈확형에 해당되며 입천장이 아주 넓은것 등으로서 이는 청동기시대 조



선옛류형사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신인 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조 선사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인식기시대를 거쳐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내려져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무덤에서는 20여점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곱배팽이, 도끼, 자귀, 활촉, 창갈, 찌르개살과 같은 석기들은 여러 가지 재질의 돌들을 잘 다듬고 정교하게 갈아 만든것들이다. 그리고 철괴들은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에 쓰인 대표적인 붉은간조토로서 조화로운 균형미와 섬세한 제작기술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초도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됨으로써 조선사람은 먼 옛날부터 우리 조국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빛내이면서 독자적으로 살아온 슬기로운 단일민족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오랜 역사를 가진 회령오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오지는 공화국의 회령오지이다. 오지그릇은 붉은찰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약한 불에 구워 굳힌 다음 오지물을 입혀 다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도기의 한 형태이다.

회령오지는 세나라시기에 자기의 독특한 민속공예적 풍격을 갖추고 높은 발전단계에 이르렀으며 조선봉건왕조시대에 와서는 부역세간의 범위를 벗어나 그 품종이 100여종을 헤아렸다.

살균작용과 함께 음식을 담기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아 건강에 좋고 더없이 아름다운 회령오지그릇은 오랜 세월 왕궁에서 리용되었고 함경북도일대는 물론 여러 지역들에서 결혼지참품으로 빼놓지 않았다.

본사기자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평성교원대학부속 평성시덕성소학교 교원

황복경

학교적인 교수방법발표회에서 그의 교수방법은 제목해설과 물음제시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내용을 전개한 소논문은 많은 교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과정과 책임기지도, 학부형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실천적경험 등을 일기형식으로 적어 매주 1차례씩 발표하였

으며 이것은 전교에 일반화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소학교자연과목교수에서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방법과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화상차리프로그램 등을 완성하여 실제로 구현하였다.

그가 담당하는 학급은 언제나 최우등학급으로 자랑했

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수재양성기지들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창조형인재육성을 위한 새교수방법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그는 2021년 공화국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건강상식

건강에 해로운 새벽녘등산

흔히 사람들은 수면이 우거진 곳이면 무조건 좋은 곳으로 알고 이런 곳을 자주 찾곤 한다.

그러나 수면속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좋은것은 아니다.

새벽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는 평야면에 압축된다.

이때 공기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탄산가스가 많이 섞여있게 된다.

나무는 해별이 내리쬐는 시간에 빛합성을 하여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므로 낮에는 산소가 가득차있게 된다.

그러나 밤에는 호흡작용만 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므로 산소는 적고 탄산가스가 많

게 된다.

이때 사람이 수면속에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게 되면 산소의 공급이 적은 대신 탄산가스가 몸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로 하여 현기증이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벽에 수면속을 거닐거나 등산을 하는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어지러우면 경추의 뼈질이 증식되었을수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경추동맥이 압박되어 뇌수의 괴공급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 일찍 일어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

어떤 로인들은 새벽 4~5시가 되면 일어나는데 잠에서 깬 후에도 온몸에 맥이 없고 가슴이 답답해한다.

림상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울증, 혹은 정신심리장애

아침에 나타나는 질병신호

이 두근거리고 배가 고프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새벽 4~5시에 일어나서는 배가 고프는감을 느낀다.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로하며 맥이 없어하는데 아침식사후에 이런 증상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안과 혀, 목이 마르게 된다.

이런 증세는 아침식사 후 천천히 없어지는데 이것은 당뇨병에 걸렸다는 신호이다.

본사기자

삼복철의 보양음식 -



조개탕과 팔죽

삼복철에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만들어 먹어온 보양음식들에는 단고기장과 함께 조



조개탕



팔죽

개탕과 팔죽도 있다. 특색있는 민족음식인 조개탕은 그 맛이 매우 독특하다.

기름기를 뺀 닭고기국물을 차게 하여 시원한 맛을 낼뿐 아니라 해삼, 특두묵, 오이를 비롯한 음식감들이 산뜻한 맛을 내고 새콤하면서도 맵사한 식초와 겨자로 하여 여름철에 떨어진 입맛을 돋구어주는데는 조개탕이 그저그만이다.

조개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음식재료들은 무더위로 인한 중상해소에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영양가가 높고 지방이 적은 닭고기와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우는 해삼, 열독을 없애

주는 특두묵은 원기회복에 좋은 음식감이다.

식초와 겨자는 삼복철에 자주 나타나곤 하는 괴로감과 소화불량증 등을 막아주는데 특효가 있다.

민속명절인 동지날의 전통음식으로 꼽는 팔죽도 기본재료인 팔의 찬 성질로 하여 삼복철의 무더위를 가해주는 데 좋은 보양음식으로 되고 있다.

고려의학에서 《적소두》라고 불리우는 팔에 대하여 옛 문헌에서는 그것이 몸안의 나쁜 수분을 배출하고 증기를 치료하며 설사를 멎게 하고 오줌이 잘 나가게 할뿐 아니라 복수로 하여 배가 불러난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마지막 발명품 (1)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조선봉건왕조조영인 1441년 8월 18일 이날 세계최초의 발명품인 축우기가 완성되었다.

임금 세종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문관측을 맡아보는 서운관에 나와 축우기를 보면서 매우 만족해하였다.

하얀 화강석대에서 반짝거리는 크지 않은 쇠통, 만든 솜씨가 참으로 정교하며 그 지혜도 놀랍고 경탄할만 한것이였다.

축우기를 살펴보면 세종의 얼굴에 한가득 웃음이 피어올랐다. 《나의 지혜와 재능이 실로 놀랍구나. 감전년(세종 16년)에는 자격루(물시계)를 만들고 오늘날은 또 이런 기이한 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의 농사를 돕게 하였으니 실로 기특한 일이로다.》

《황송하오이다.》 장영실은 허리를 깊이 굽혔다.

《소인이 뼈를 깎아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한들 어찌 상감마마의 그 은혜에 백분의 비방을 접게해은 호조에서 새로운 측정방법을 세워줄것을 서운관에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서운관에서는 비방을 측정하며 강물이 불거나 줄어드는것을 한눈에 알

아낼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을 찾아내기로 하였다. 이 과업이 장영실이라는 것 마흔에 난 천민출신의 기술자에게 맡겨졌다. 그는 거의 1년가까이 애쓰던 끝에 드디어 축우기를 완성하였다.

하얀 화강석대에서 반짝거리는 크지 않은 쇠통, 만든 솜씨가 참으로 정교하며 그 지혜도 놀랍고 경탄할만 한것이였다.

축우기를 살펴보면 세종의 얼굴에 한가득 웃음이 피어올랐다.

《나의 지혜와 재능이 실로 놀랍구나. 감전년(세종 16년)에는 자격루(물시계)를 만들고 오늘날은 또 이런 기이한 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의 농사를 돕게 하였으니 실로 기특한 일이로다.》

《황송하오이다.》 장영실은 허리를 깊이 굽혔다.

《소인이 뼈를 깎아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한들 어찌 상감마마의 그 은혜에 백분의 비방을 접게해은 호조에서 새로운 측정방법을 세워줄것을 서운관에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서운관에서는 비방을 측정하며 강물이 불거나 줄어드는것을 한눈에 알

어려서부터 남달리 꿈이 많고 뛰어나게 공부도 잘한 황복경은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소중한 뜻을 받들어 갈 일념을 안고 교원이 될것을 결심하였다.

단말머리치러시절 교단에 선 첫날 그가 그려본것은 언제나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끼는 참된 교육자의 모습, 실력있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다정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는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나 어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활용과 교편문제작에 힘을 들이고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졌는가를 의논하기 위해 몇몇 신하들을 불러들였다. 신하들이 정해진 자리에 다들어서자 세종은 좌우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정치의 근본은 백성을 잘 다스려 편안히 하는것이아 하였거니와 그러자면 춘하추동 네계절과 때와 시를 정확히 가려 정사를 베풀고 농사를 잘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헌데 아직 과인의 대궐에는 때와 시를 어김없이 가릴만한

지 방법들을 두루 이야기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시간측정이 그리 정확하다고 할수 없었다. 태고시절부터 써오던 방법의 하나는 물을 함아리에 넣고 하루동안 흘러내리게 한 후 그 물량을 12등분하여 그 물이 흘러가는 동안을 1시간으로 보는것이였다.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루각 또는 경루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들 만들어 리용하여왔다.



기계가 없으니 실로 근심스럽소. 태고시절부터 해의 그림자나 별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알아내는 법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그나마 흐린 날이면 알 도리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지... 누구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오.》

그러나 이 물시계는 하루 한두번씩 물을 갈아주어야 했고 사람이 지켜서서 실수없이 시간을 알려야 하므로 정확할수가 없었다. 때로는 시간을 왕청같이 틀리게 알려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후 송나라시에는 소송이라는 사람이 1091년 물레바퀴로 돌아가는 자동물시계를 창안한것도 있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정밀하여 그가 죽자 다시는 만들지 못하였다.